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6651~2  
FAX. 568-6653

[月刊] 第127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7月 25日(土曜日) [1]

## 어항청소선 상반기에 오폐물 25만7천kg 수거 경험 기술 축적으로 최대효과 거양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상반기 동안 제1·3종어항 및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2백4일간 출동, 연 54개 항에서 부유물 2만6천6백kg, 침전물 21만4천4백kg, 항행장애물 1만6천kg 등 총 25만7천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어항청소선은 15톤급 소형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어항은 물론 외연도 어청도 서거차 등 40 여마일 외측의 원거리에도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삼천포 삼척 등 항만과 원동항 등 제2종어항 및 연안수역에서도 침전물과 부유물을 수거하여 바다오염물 제거에 큰 성과를 올렸다.

한국어항협회는 그 동안 어항청소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으로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를 마련과 함께 지난 95년 어항청소선 인수후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쓰레기 투기 방지지도 등 어항관리와 관련한 예방지도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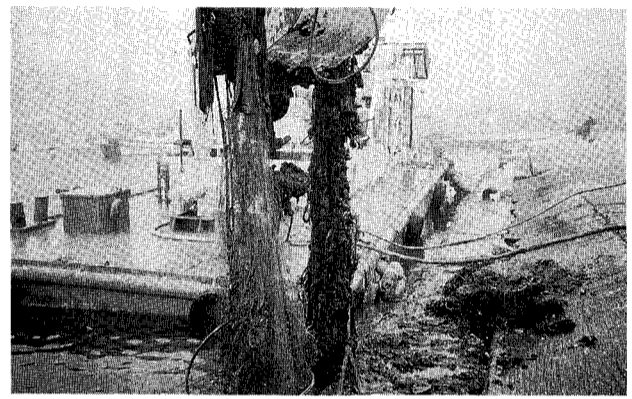
특히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어항청소와 어항환경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항협회는 그러나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도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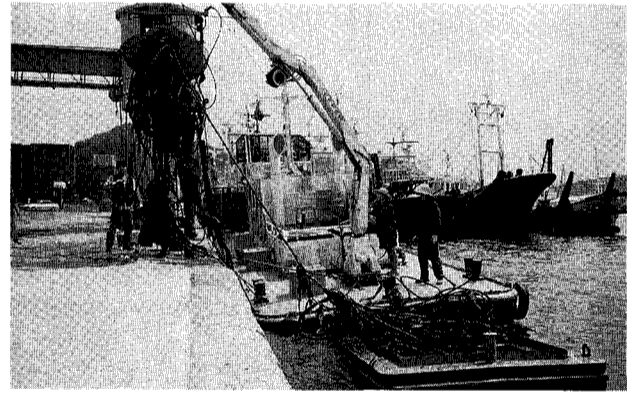
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

며, 어항청소의 현안 사항인 수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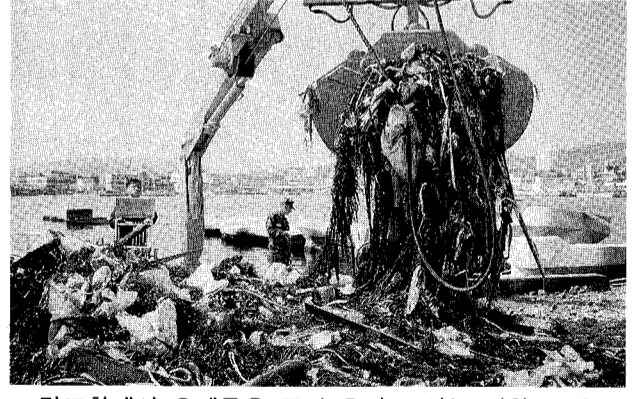
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서거차항에서 페그물 등 침전물을 끌어 올리고 있는 어항902호



국동항에서 와이어로프를 끌어 올리고 있는 어항904호



감포항에서 오폐물을 끌어 올리고 있는 어항906호

지난 상반기 동안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항901호(군산 소재) : 외연도, 흥원, 어청도 등 6개항에서 5만5천8백kg △어항902호(목포 소재) : 서거차, 서망, 어란진 등 5개항에서 2만7천1백50kg △어항903호(고흥 소재) : 녹동, 풍남, 소안 등 9개항에서 2만3천9백kg △어항904호(여

수 소재) : 미조, 국동, 삼천포 등 10개항에서 4만9천5백50kg △어항905호(통영 소재) : 능포, 구조라, 외포 등 11개항에서 2만7천1백kg △어항906호(포항 소재) : 죽변, 후포, 정자 등 4개항에서 3만9천kg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대진, 거진, 삼척 등 9개항에서 3만4천5백kg 등이다.

지난 6월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어항기술세미나는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그런 회의였다.

지난해부터 양국의 기술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훌륭한 어항어촌 정비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개최된 이 회의는 앞으로 진정한 기술 교류와 함께 인적교류로 발전되어 양국의 어항어촌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새삼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어항산업의 현주소이다. 말로는 수산진흥, 수산대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 우리를 착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한 직후부터 어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항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이미 1948년에 전국어항협회를 비롯하여 전국 40개 현에 어항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정부조직과 연계된 산하기관, 단체를 과감히 신설 확충하여 현재 12개 어항관련 산하단체가 업무를 분장,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어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항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이미 어항기본시설을 완료, 현재는 어항 기능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제9차 정비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총 수산예산의 62% 이상을 어항 개발을 위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다.

이는 어항개발이 수산정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어항예산이 수산예산의 20%가 채 못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크게 비교가 된다.

한국어항협회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 연구, 홍보 등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정부적 기능수행을 위해 개정된 어항법에

따라 1994년 3월 30일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협회의 법적 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조직, 인력, 예산이 정상적으로 뒷받치지 못해 법정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번번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어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려는 일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항어촌을 일체로 한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다양한 전문단체에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취약하기 이룰데 없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국내 유일의 어항관련 전문단체인 한국어항협회에 모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항기술을 선진화하는 한편 21세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깝게는 한·일 양국의 어업협정문제로부터 신해양법시대를 맞아 연안국의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장규제 문제, 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상실 문제, 도시와 어촌을 초월한 어촌정주권 조성을 위해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종합개발 등의 문제가 산적돼 있다.

특히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한 어항건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형 어항건설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을 활성화하며, 어항 기술연구 기반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조직적이고 체계있는 방대한 어항 전문단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대안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유일무이한 형편이다.

정책이란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미래지향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어항협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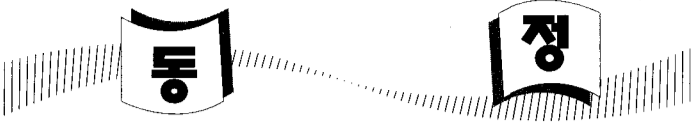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어항관련 전문단체  
한국어항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한국어항협회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바다 주변이 크게 오염될 것에 대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항청소선을 이용하여 바다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다



### 한·일 의원연맹 방한단을 접견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1일 안성봉 선박안전기술원 초대회장에 임명장을 수여, 2일에는 해운조합 회장단 오찬간담회를 개최, 3일에는 선박안전기술원 개원식 및 현판식에 참석,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업해양수산관련 의원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프랑스국 경일 행사 리셉션에 참석, 15일에는 카와무라 다게오 의원 등 일본 자민당의원 4명으로 구성된 한일 의원연맹 방한단을 접견, 17일에는 광양항 개장식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3일 선박안전기술원 개원식 및 현판식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7월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일

본 수산회장과 한일 민간어업협의회를 갖고 양국 어업질서유지와 어업협정 재개정 교섭에 따른 민간어업단체들의 상호협력방안 등 어업현안을 논의.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7월3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개원식을 개최.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1일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 취임식에 참석, 2일에는 국제인권옹호 회장단 회의에 참석, 7일에는 광주국악진흥회 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이어 제립해양수산관련 의원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프랑스국 대사관에서 열린 프랑스국 경일 행사 리셉션에 참석, 15일에는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에 참석, 16일에는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6월29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제1회 송원배 전국 중고배구대회를 개최, 7월1일 허경만 전남도지사 취임식에 참석, 16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푸른쉼터 선포 및 범죄예방마음대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1일 대전시장 및 충남도지사 취임식에 참석, 9일에는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10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찬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전경련 주관 하계세미나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7월15일 항만협회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자문회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10일 나주종합체육관에서 응곡배 펜싱경기를 개최.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7일 대한건설협회 제7차 이사회 및 시도회장 간담회에 참석, 13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관기관장 상임위원 간담회에 참석, 15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자문회의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1일 허경만 전남도지사 취임식에 참석, 16일에는 진도 공사현장을 방문.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7월13일 제주도지사 초청간담회에 참석.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7월1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 9일에는 제주도의회 제6대 도의회를 개원, 10일에는 제주국제협의회 세미나의 밤에 참석, 18일에는 컨벤션센터 이사회 및 제주국제신문화축제 전야제에 참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7월11일 세종호텔에서 충북협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이재균 ▲양식어업과장 김종규 □과장급 인사 ▲어촌계획과장 박재준 ▲어업지도과장 우예종 ▲양식어업과장 심호진 ▲국제기구담당관 최장현 ▲원양어업담당관 손부일 ▲어선관리담당관 이준양 ▲해양방재담당관 송성호 ▲해양환경과장 이용수 ▲항로표지과장 박재현 ▲국립수산물진흥원 연구기획과장 정도훈 ▲국립수산물검사소 검사과장 정영훈 ▲분석과장 나택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윤지희 □서기관급 인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전기정 ▲항만정책국 항만운영과 정형택 ▲수산정책국 무역진흥과 전영식 ▲어항개발과 김석진 ▲어업진흥국 어업지도과 정태균 ▲자원조성과 박규호 ▲국립수산물진흥원 정정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정인 ▲해양수산부 근무 김형목 □사무관급 인사 ▲장관실 이상문 ▲감사관실 김우현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준석 ▲국제기구담당관실 김동주 ▲안전관리관실 안전계획담당관실 엄태홍 ▲해양정책국 해양총괄과 송상근 ▲항만정책국 항만운영과 조한남 ▲항로표지과 안종열 ▲수산정책국 유통과 김천수 ▲어촌계획과 노병환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

염기두 강인구 박성우 ▲어업지도과 성기만 김상규 ▲양식어업과 임광희

### 취 임

▲안성봉 전 한국어선협회장은 7월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초대원장에 취임했다.

▲임성식 군산수산업협동조합장은 7월14일 제13대 조합장에 취임했다.

### 개 설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은 7월10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74-42에 상호금융점포 광명지점과 회백화점을 개점했다. 전화 (02)689-9265-7.

###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남화토건주식회사(회장 최상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회장 송재성)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사장 김영운)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공단(회장 최석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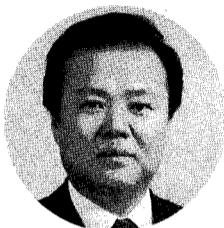
■개인

▲정공일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사장)

▲피경만씨(주식회사경일기술공사 상무)

▲정해용씨(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상무이사)

### 시 신 기 중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7월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손 회장은 의학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신체의 영구표본제작과 각막이식을 위한 안구기증을 허락.

### 인 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 ▲수산정책국장 박희도 □부

## 항만공사 설계용역입찰 간소화

### 해양수산부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 설계용역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입찰방법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항만공사 설계용역의 질적 향상과 입찰참가업체의 행정불편저감차원에서 그동안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입찰장구서류 제출의무화 등 입찰

과정상의 불필요한 제반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의 입찰집행실태점검과 관련업체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간소화된 용역집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하반기부터는 새로 제정된 입찰지침에 따라 모든 설계용역을 집행토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용역입찰시행지침(안)에 따라

면 사업별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장구서류의 원본제출의무를 폐지, 사본으로 대체하거나 변경된 사항만을 별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공고를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에도 병행 게재하기로 했다.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도입

### 해양수산부 연내 관련법 개정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 보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환경보전 기준과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오염행위자에 대해 일정한 부과금을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연내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환경 관련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달중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이를 해양환경유지 및 복구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부

또 지방발주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입찰일 하루 전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입찰등록을 입찰당일에 하도록 입찰일정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용역업체의 인력난을 감안, 책임기술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의 평가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으며 용역과업범위와 용역기간을 적정하게 편성해 추가용역에 따른 용역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해외 신기술

## 새 안벽 축조공법 개발

일본 가시마(鹿島)건설이 개발한 안벽축조공법 '하버스테이지 파이링공법'이 운수성의 항만관련 민간기술평가증을 취득, 신기술로 인정 받았다.

지금까지 안벽축조공사는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해수 차단용 강관을 하나씩 별도로 접합하는 강관말뚝공법이 일반적이었으나 안벽의 증설공사나 개수공사 때는 이미 설치된 케이슨의 지반보강을 위해 갈아놓은 대형 쇄석이 강관타설의 장애가 돼 쇄석을 견어내지 않고서는 시공을 할 수 없었다.

또 쇄석을 견어내기 위한 굴삭절거 작업시 대형장비가 필요, 가설 널빤지를 설치하거나 작업선 등을 이용해 해

상에서 시공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돼 왔다.

가시마는 이에 착안해 기초쇄석 철거 작업시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현수교 처럼 생긴 주행식 가대를 설치함으로써 파도나 조류, 화물 운반선 등의 방해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한 것이다.

신공법은 이밖에도 비교적 대수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다 시공성이 좋고 공기단축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적합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안벽축조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가시마는 강조하고 있다.

## 간월도를 해양레저단지로 개발 340억 투입 바다축제장 등 건립

국내 최고의 어리굴젓 생산지인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가 종합해양레저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간월도는 굴부르기 군왕제 해양민속 본고장이며 인근에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있는 서산 AB지구에 접한 천수만 초입내륙부로부터 천혜의 비경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최근들어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간월도 앞바다는 청정해역으로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 물이 나가면 걸여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산시는 이같은 빼어난 간월도를 임해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7년 7월 문화체육부로부터 이 일대 4만5천4백평을 권역별 개발대상지로 승인을 받았다.

서산시는 우선 올해 1억2천만원을 들여 간월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총 4백30억 원을 들여 철새 및 조각공원, 어촌체험촌, 전망대, 바다축제장 등을 갖추고 해양특산품, 바다낚시, 해양민속 및 바다관광과 연계한 임해 종합레저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 중소건설현장 품질확보 위해 시공 상세도 시공사 직접작성 유도

정부는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상세도를 시공회사가 직접 작성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순서나 방법 등을 도면화해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세도없이 공사를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공회

사가 직접 수행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공상세도가 상세설계도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현장별 시공순서나 방법 등을 감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오히려 실제현장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용역회사가 현장여건을 도면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이처럼 제도개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공회

또한 실제 시공과정에서 도심지굴착 등 안전성이 크게 고려되는 현장을 제외하고는 시공상세도 작성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실도 제도개선을 앞당기는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시공상세도 작성범위나 내용 등을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며 특히 시공상세도를 직접 작성할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 수산업을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육성

##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지난 7월10일 김선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국정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제2의 국토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0년에 열리는 세계해양엑스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분야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해양수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금년말까지 기존 규제

7백64건 중 절반이 넘는 3백91건을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산업의 지향적인 환경친화적 어업육성을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장휴식년제 및 환경수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업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어족자원의 감소 및 조업어장이 축소로 어선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연근해 어선을 연내에 2백 여척을 감축, 내년부터는 해마다 4백 여척씩 2004년까지 총 2천6

백 여척을 감축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SOC투자 대폭 확충

## 농어촌개발 투자방향 정립

정부는 고용증대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확충키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

르면 내년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지역·계층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21세기 경제강국의 기틀을 다지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서둘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는 내년에 SOC투자를 대폭 확충하되 고용증대와 지역균형개발 등 가시적인 투자효과를 감안,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사업별로 당장 고용이 일어나면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공사비 위주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지역별 실업률과 개발낙후도 등을 감안해 재원을 배분하는 등 지역·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고 농어촌개발에 대한 투자방향을 정립,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의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건축법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상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 해상교통 안전대책, 해양오염 방지대책, 태풍 등 재난시의 영향 및 대책, 해양과 조화를 이루는 풍광유지, 해양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조치 등을 허가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어 제정 추진중인 연안관리법령에 해양건축물에 대한 설치근거와 건축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명시, 부분별한 해양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허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긴급상황에 대비키로

일기예보와 같은 해양예보시스템이 오는 2000년까지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난구조나 해양오염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양경제활동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해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

기 위해 해양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조사와 연안방재, 항만건설 및 운영, 안전운항, 해양방위 등 해양관련 업무 효율화 및 해양정책 수립 활용을 위해 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 해외 어항정보

## 찾아와서 즐거운 어항어촌 정비

사마노우라(島野浦) 지구는 정어리 선망의 어선어업, 방어 양식업과 함께 수산 가공업이 번창하는 도시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을 핵으로 하여 혜택을 받은 자연환경을 살린 도시 주민과 도시 주민의 교류의 장으로서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의 정비를 꾀하기로 하였다.

기본 구상은 미야자키(宮崎)현과 가까운 현(縣)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업을 알리고, 어촌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비를 표방하는데 있다.

기본 방침으로는 ①수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시설의 정비 ②살기좋은 어촌 만들기를 위한 생활 환경의 정비 ③외래자를 맞이하기 위한 '찾아와서 즐거운' 어항 어촌의 정비 등을 들 수 있고 녹지공원, 수산직매소, 수산학습시설, 어업체험시설, 수산견학시설 등이 구상 속에 담겨져 있다.

이에 수반하여 양식지와 가공시설의 정비, 섬의 관문인 페리 선착장 주변의 정비, 외래자나 그 지방 주민이 바다에 친숙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정비, 지형

조건에 뒤떨어지고 있는 주민의 건강 증진, 레크리에이션·집회를 위한 시설 정비가 과제로 되어 있다.

또 수산업을 핵으로 지역 진흥을 전제로 한 '보여주는 어업' '자연 지향형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으로 향하는 시설 정비를 위하여 조닝(Zoning=地帶制)을 행한다.

각 지대로서는 ①재배어업 지원지대(어류양식의 생산공급 기지) ②연안어업 기지(폐적한 취로 환경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업기능의 향상을 꾀한다.) ③수산가공 기지(집락환경의 개선과 가공업의 합리화, 근대화를 꾀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업의 집약을 도모한다.) ④교류계이트 지대(콤포지티 공간이 정비된 페리 선착장을 코어로 한 교류의 장의 제공) ⑤해양공원 학습지대(자연 상황을 남기고, 섬내 유일한 해수욕장으로서 보전하는 동시에 자연과 친숙하는 형태의 관광 유치를 도모한다.) 등의 사항이 정비방침에 따라 거론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백47억엔으로 그 지방 고용 기회의 증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 시행될 경우 해양오염과 해난구조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해양예보 자료제공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국가해양관측

망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기에 보처럼 해양 및 수산과 관련된 경제활동 및 국민의 일상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

### 민속문화 보존에 기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6월26일 전남 완도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부터 건립 추진될 어촌민속전시관은 3년동안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지역에서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어촌 고유의 민속자료와 전래어업 등을 발굴 전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촌민속박물관으로 현재 산업화 등에 의해 소멸되고 있는 어촌민속문화를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 설치 허용 등 어항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심의요청

해양수산부는 어항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에 심의를 요청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어항구역의 확장없이 어항구역 밖에도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범위를 정했다.

비관리청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기능시설용 부지의 범위를 어선건조 수리장 수산물시장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등으로 정해 민간자본 유치와 어항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어항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무단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절차를 정하고 어항시설 사용료 등 수입금을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을 정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 해상건축물 설치규제 단계적 완화

### 2천년까지 해양건축법 제정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온 해양관광호텔 임항건축시설 등 해상건축물에 대한 설치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상건축물의 전반적인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장 해양건축법을 오는 2000년까지 제정, 해양시설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환

경보전을 위해 전면 불허해 온 해양건축시설에 대한 설치규제가 지역의 해양산업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경관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해상건축물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1단계로 현행 규정상 불허하고 있는 해상관광호텔의 건설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건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 어항건설 기술경쟁력

# 제고에 최선을

# 다하는 '世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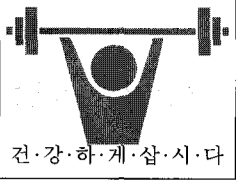
- 代表理事 會長 (港灣 및 海岸技術士) 崔錫煥
- 代表理事 社長 李鍾聲
- 副 社 長 姜寅雄
- 副 社 長 朴武英
- 專 務 理 事 (港灣 및 海岸技術士) 兪用源
- 專 務 理 事 金龍均
- 常 務 理 事 金鍾晚
- 常 務 理 事 黃仁燮

### 營業種目

- 港灣(一般工業港 漁港)의 調査 計劃 設計
- 埋立工事, 臨海工業團地造成의 計劃 設計
- 運河開發의 計劃 調査 設計
- 防波堤 및 浚渫工事의 計劃 設計
- 公有水面 埋立計劃 設計業務 代行
- 防潮堤 및 干拓事業의 計劃 設計
- 諸般 海岸工作物의 設計 및 施工 監理
- 港灣工事 新工法의 開發 研究 檢討
- 港灣陸上施設 設計 施工 監理
- 港灣開發에 따른 環境影響評價 代行

## (株)世光綜合技術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79-44호, 전화 : 323-9962~5, 323-1667



# 다한증

스트레스 자율신경계가 주요인  
소음인은 보양식, 소양인은 돼지고기가 좋아

몹시 더운날 힘든 작업을 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런 생리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비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주로 손바닥과 겨드랑이, 발바닥에 심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를 다한증이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땀은 체온조절을 위해 흘리게 되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흥분했을 때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땀을 흘릴 경우 원인을 밝혀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질화에 의한 것(전신성 다한증)은 땀이 전신에 걸쳐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원인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에 의한 경우 발열과 함께 심하게 땀을 흘리는 수가 많으며 자율신경계 조절 약물을 복용하거나 열이나 질화를 앓다가 열이 사라질 때,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많이 떨어지거나 갑상선기능 항진증일 때, 중추신경계 장애·비만일 경우, 갱년기증후군 등 내분비 호르몬의 대사이상일 때 결핵 등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에 의해 많은 땀을 흘릴 수 있다.

반면 체질에 의한 것(국소성 다한증)은 땀이 몸의 특정부위에 나는 것이 특징이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겨드랑이나 이마 부위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

나 체열이 많을 때 땀을 흘리게 된다.

식후에 땀을 비오듯 흘리는 것은 위기능항진에 의한 위열 때문이다. 과음한 다음날 아침 식사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이다.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땀은 결핵이 의심된다.

이런 땀은 어느 경우든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이 이상하게 흥분돼 나타난다. 즉, 몸 안팎의 온도상승 등의 자극을 받은 뇌 속의 뇌하수체전엽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부신피질 호르몬의 일종인 아드레날린을 분비, 땀샘으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홍강경 시술은 1~2cm 정도 절개한 부위에 3, 4개의 홍강경을 삽입해 시술하는 것으로 2시간여의 수술과 3일 정도의 입원이면 된다.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반면 조급한 성격인 태양인은 특히 여름에는 해물류나 푸성귀를 많이 먹는 게 좋다.

특히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과 개고기는 더운 속성을 지닌 음식으로, 냉한 체질인 소음인에게 소화흡수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열이 많은 소양인과 태음인이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헛배·비만·고혈압·중풍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소양인은 돼지고기와 같이 속을 식혀주는 음식이, 태음인에게 소고기 따위의 고단백음식이 더 좋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1)

## 第2章 浚渫工

(5) 본선끌어내기  
본선끌어내기를 미리 정해진 계선장소 또는 정박장소에서 작업장소까지의 본선이동이다. 다른 선박에 지장이 없을 경우 또는 작업선 자체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회항에서 직접 준설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일도 있다.

본선의 준설작업 개시 위치 및 방향을 정확히 표시하고 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부표나 장대 등으로 앵커 위치를 표시한다.

(6) 오탁방지를 부차  
준설작업으로 인한 해수오탁확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장소(양어장, 양식장 부근 등)나 저니오염구역서 준설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과 오탁방지틀을 병용한다.

반대로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는 오탁방지틀만으로 준설하는 경우도 있다.

(7) 쇄암  
종래 암반준설은 발파쇄암 또는 쇄암전용선에 의하여 암반을 파쇄한 뒤, 그래브식 준설선으로 준설하는 공법이 사용되었으나 근래는 그래브식 준설선의 그래브버킷을 떼어내고, 그 대신 쇄암봉을 장치하여 암반을 파쇄한 뒤, 다시 그래브버킷을 설치하여 준설하는 「쇄암겸용그래브식 준설선」에 의한 시공예가 많다.

쇄암전용선에 의한 쇄암은 원치에 의하여 쇄암봉을 일정 높이까지 감아 올려 가이드관을 통하여 낙하시켜서

암반을 파쇄하는데 반하여, 겸용선의 쇄암은 가이드관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해저지반까지 낙하시켜서 암반을 파쇄하므로 「프리(free)쇄암」이라 부른다.

또 그래브식 준설선으로 그래브버킷을 떼어내고 록해머(록브레이커)를 매달고 쇄암한 뒤, 재차 그래브버킷을 장치하여 준설하는 공법도 있다.

연암의 경우에는 헤비타입(중량형)의 그래브버킷을 장착하여 직접 암반 준설을 하는 일도 있다.

① 중추식 쇄암  
일반적으로 프리쇄암이라 부른다. 그래브식 준설선의 그래브를 떼어내고, 그 대신에 쇄암기를 내려뜨려서 가이드관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해저지반까지 낙하시켜서 쇄암하는 공법이다.

특징은 암질, 관리의 상황에 따라서 쇄암기의 형식 및 중량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암반에 대한 통용범위가 넓고 시암, 혈암에는 최적이다. 그러나 경암의 급사료면에서는 쇄암봉이 미끄러져서 쇄암효과는 저하한다.

또 수심이 얇을 경우는 쇄암봉이 전도하는 일이 있어 위험하고, 파쇄된 바위조각이 흩날리는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a. 쇄암봉의 형상과 중량  
쇄암봉에는 일문자형·포크형·펜실형·크로스형 등이 있는데, 통상 암반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일문자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2.3.4 참조). 쇄암봉의 중량은 보링·탄성파탐사 결과 및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암질·암반 풍화의 진행상태, 관리의 들어간 모습 및 해저의 기복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b. 쇄암피치  
쇄암의 효율은 쇄암피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쇄암봉이나 브레이커(breaker)의 충격에너지가 가장 유효하게 암반에 사용시키기 위하여 암질·풍화의 진행상태, 절리의 들어간 모습 등으로 인한 암반파괴의 난이도 및 수평방향으로의 파괴전과거리 등을 감안하여 피치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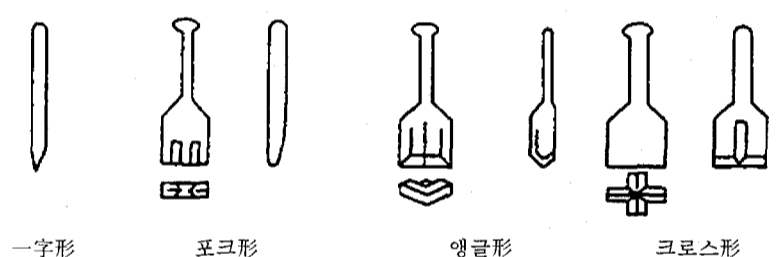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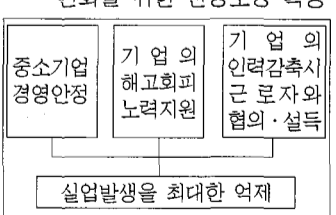


그림 2.3.4 쇄암봉의 형태

###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금리·환율의 인하를 도모하고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경영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경영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

(가) 중소기업경영안정



○ 중소기업은행 증자(1.5조원\*)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2조원 이상 확대

'98예산	ADB차관자금	추경예산	계	
- 출연규모	7천억원	1조8천억원(10억불)	1천억원	2조6천억원
- 보증여력확대	50조원	2조원	52조원	

- \* 정부보유 담배인삼공사·한전·포철주식 등
- 1,300여 중소기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중 만기도래된

외화표시 대출금(5.3억불) 상환기간을 일괄적으로 1년 연장조치

○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완화하도록 IBRD차관자금 2억불을 활용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9조원 확충

○ 기업의 시설자금·기술개발 자금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기업경영안정자금에 활용  
\* 사업지원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98년 산업기반기금 3,916억원중 1,02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전환·지원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시설자금의 10%로 되어 있는 운영자금 비율을 40%로 확대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인수·합병, 유류설비 처분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도산에 따른 실업방지

\* 기 조성·확정된 8,700억 원중 일부를 구조조정 용도에 활용

- (나)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 업무공유(Work-sharing) 지원
  - 근로시간 1/10이상 단축하여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
  - 단축전 지급임금 총액의 1/20-1/30 지원(최대 6개월)
- 일시휴업 지원
  - 월 2일이상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사업주
  - 지불한 휴업수당의 1/2-1/5 지원(최대 6개월)
- 인력재배치 지원
  - 업종전환후 기존 근로자의 60%이상을 재배치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급임금의 1/2-1/5 지원(1년간)
- 고용유지훈련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훈련비 전액과 지급임금의 1/2-1/3 지원(6개월 범위내)
  - \* 이러한 지원제도가 활성화

###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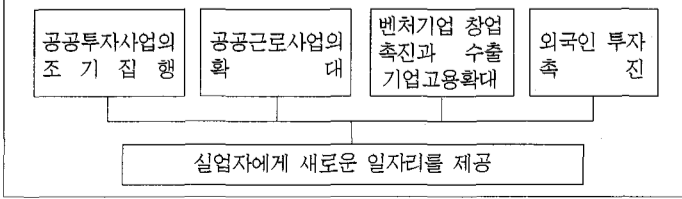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추진대책

화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 계속 검토

- (다) 신중한 고용조정 관행 정착
- 노동법 개정으로 정리해고가 허용되었으나 인력감축 시에는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고용조정 관행을 과감

### 2.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출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등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



- (가)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
- 금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당초 51% (36조원) →

61% (42조원)로 상향조정 - 고속도로등 주요투자사업의 배정비율 59% (8.6조원) → 70% (10.2조원)

- 추경에서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하여 고용효과가 큰 SOC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규모 확대
- 국방부·조달청·한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30조원)을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 집행
- 고용효과가 큰 한전의 송배전 시설 투자 확대
  - \* 산업은행에서 6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2천명의 고용창출효과 기대

(나)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하여 활용
  -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니라 생산적 근로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
- 역특성에 맞는 업무를 발굴
  - \* 바다 및 하천 청소·교통 정리 및 주차계도 등

생활정보

생활정보